

# «빈곤과 부의 기원» 서평-어떤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가난한지 찾아내기 위한 세계 일주

글쓴이 제임스 로 2026-02-06

“이 책은 그것의 영향에서, 거의 두 세기 전에 쓰인,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미국에서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와 어깨를 겨룰 독특한 고전이 될 운명이다.”-스티브 포브스(Steve Forbes)

세계에서 빈곤과 부 양쪽 다 어떻게 창출되는지 탐구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정치 및 사회 투쟁의 중심에 있다. 그것은 대부분 사람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이다. 당신은 자유 시장들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더 많은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가? 똑같은 나라에서, 심지어 똑같은 이웃에서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종이 수십억으로 돈벼락을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한 주 40시간 일 자리로 그저 가까스로만 “그럭저럭 헤어나고 있고(getting by),” 그들이 그저 자기들의 집을 유지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만 매일 분투하고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의 최근 책, «빈곤과 부의 기원(The Origins of Poverty and Wealth)»(<https://www.amazon.com/Origins-Poverty-Wealth-Rainer-Zitelmann/dp/1852527951>)은 어떤 이전 시도보다 더 깊이 이 주제에 관해 파고든다. 이 논제들을 그저 한 나라 안에서만 탐구하는 데 만족하기보다, 지텔만은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현장에서, 뉴욕과 멤피스 같은 미국 도시들과 함께, 아순시온, 보고타,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울, 취리히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른 도시 같은 지역들에서 탐구하는 외관상 극복할 수 없는 과업을 떠맡는다.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면서, 세계를 무대로 삼는 지텔만은 자기 이야기를 만들고, 네 대륙을 가로질러 여행하며, 다수 배경 출신 수백 명과 이야기하는 데 자원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 신문 잡지 기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보통 시민들을 포함하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로서 그것[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의 한계와 범위를 망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다.

그것은 쉬울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 논제들을 탐구하는 것에 관한 한 지텔만은 온갖 수를 다 썼다. 몽골리아에서 일간 신문사를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알바니아에서 공산주의 독재자 엔버 호자(Enver Hoxha)가 건설한 진기한 벙커를 추적하는 것에까지, 그는 문자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을 이 대륙들의 모든 인치(inch)를 망라했다.

연구의 이 깊이와 폭은 견줄 데 없다. 지텔만의 진정한 접근법은 빛을 발하고, 그 책을 절대적인 필독서로 만든다.

우선, 그는 빈곤의 기원들을 논하고, 그 후 부의 원인들을 탐구한다. 양쪽 다는 아주 읽을 가치가 있는데, 당신은 지텔만이 인터뷰하는 중요한 인물들의 관점에서 문자 그대로 양 여행에 대한 열쇠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동정심에서 그렇게 하지, 한쪽을 찬성하고 다른 쪽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각 측면의 징후들과 결과들을 탐구하고, 각각의 의의를 설명한다.

지텔만의 심층 인터뷰들은 그 이야기의 각 측면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광범한 논제를 망라한다. 이것은 빈곤이 어떻게-심지어 예상 밖으로조차도-보이게 될 수 있을지 탐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하여, 부도 똑같이 중요하게 검토되고, 상속으로 “운이 좋아지(get lucky)”거나 복권 당첨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에게만 기초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데, 특히 자유 시장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하는지에 관한 더 면밀한 고찰을 가지고서 그러하다.

그는 또한 그것보다 더 나아가기도 하여, 이론이 어떻게 실제 예들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지 논한다. 이것은 특별히 각 대륙과 그것

안에 있는 도시들을 고찰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편을 선택하(choose a side)”도록 간청하는 시장에서 불편부당한 저자가 얼마나 현실 세계적인지-그것을 상상해 보라-를 고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드물고, 독자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한다.

지텔만이 빈곤과 부 관점 양쪽 다로부터 상당한 분야를 망라하므로, 그 책을 탐구하는 데는 시간이 한참 동안 정말 걸린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나은 쪽으로인데, 양쪽 다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실패들이 어떻게 어느 한쪽에든 당신이 예상할지 모르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관해 그것이 훨씬 더 큰 그림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에서 암시했듯이, 명백히 어떤 사람은 “글쎄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저버렸지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는 더 많은 것이 있고, 이 책은 그[더 많은]것을 더욱더 분석한다.

요컨대, <<빈곤과 부의 기원>>은 자기 분야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망라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어느 한 측면이 다른 측면보다 더 낫다고 암시하지는 않는 접근법을 취한다. 그는 긍정적인 점들과 부정적인 점들 양쪽 다룰, 정보를 주고, 재미있으며, 고무하는, 관점에서 망라한다. 당신은 그가 인터뷰하는 모든 당사자로부터 큰 통찰력을 기대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각각은 전반적인 그림의 일부를 그린다.

라이어 지텔만은 귀중하고 상당히 읽을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창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의 은퇴 생활로 들어가는 잘 사는 사람들이나 그저 자기들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할 뿐인 보통 사람들(average Joe)을 포함해서, 양측에게 그리고 열린 마음을 지닌 누구에게든 확실히 두 눈을 뜨게 해 주는 경험이다.

약간 시간을 내어 라이어 지텔만의 획기적인 <<빈곤과 부의 기원>>에 탐닉하시라. 당신은 그것이 잘 쓴 시간과 노력임을 발견할 것이고, -당신이 테이블의 어느 쪽에 앉아 있건 상관없이-현실 세계의 더 명백한 이해를 갖고 떠날지 모른다.

이 칼럼은 2025년 3월 3일에 <<유어뉴스(yourNEWS)>>에 게재되었다.

제임스 로(James Lowe)는 20년간의 라디오 산업 베테랑이고 지금은 캔자스주에 기지를 두고 아이하트라디오(iheartradio) 앱으로 정기적으로 방송되는 자기 자신의 전국적인 신디케이트 라디오 쇼의 사회자이다. 더 많은 것은 [jiggyjaguar.com](http://jiggyjaguar.com)에서 조사해서 찾아내시라.

번역: 황수연[미제스라이어(<https://mises.kr>) 회장]